

IFS 국가 정책 제언 한국인의 민주주의 인식:

계엄은 한국인의 민주주의 인식을 변화시켰는가?

통일연구원 이상신 선임연구위원



1

계엄과 민주주의 인식의 변화

민주주의 인식조사 개요

-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의 민주주의 클러스터는 2024년과 2025년에 2차에 걸쳐 한국인의 민주주의 인식을 조사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함
- 2024년 조사는 대면면접 방법을 사용하였으며, 전국 거주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였음. 조사는 2024년 7월 9일부터 8월 9일까지 실시됨. 총 1,003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짐
- 2025년 조사는 온라인 패널 조사임. 모집단은 마찬가지로 전국 거주 18세 이상 성인남녀이며 조사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12월 24일이었음. 총 1,5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
- 민주주의 클러스터의 민주주의 인식조사는 (1)한국 일반 유권자의 민주주의 인식 및 평가에 초점을 맞춰 실증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, 일반 시민이 이해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와 이들이 평가하는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파악하고,
- (2) 이를 기존의 일반 유권자 대상 정치·사회 인식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 조사 결과와 비교·분석하고,
- (3) 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, 한국 민주주의의 작동과 운영 실태를 입체적으로 평가하고, 개선을 위한 정책적 처방의 근거 자료로 제시하고자 함

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인식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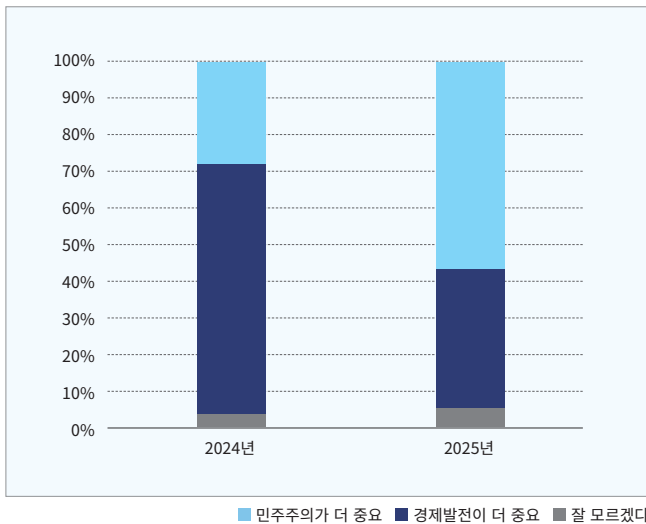
- 2024년 7월에 실시된 1차 조사와 2025년 12월의 2차 조사 사이에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한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가 있었음
- 이 이슈브리프에서는 계엄의 경험이 한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간단한 기술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려 함
- 2024년 12월의 계엄 직후 국회와 거리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집단적 대응은 민주주의 가치가 단순한 추상적 선호를 넘어 한국 사회 내부에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었음
- 본 브리프는 계엄이라는 충격이 한국인의 잠재된 민주주의 의식을 어떻게 표면화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



2 민주주의와 경제발전

뚜렷한 인식 변화의 증거

- “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, 귀하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” 라고 물었을 때, 2024년 조사와 2025년 조사 사이에 큰 변화가 발생함



- 2024년 조사에서는 불과 28.4%의 응답자가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고 답변. 그러나 2025년에는 이 비율이 57.1%로 증가
- 2024년 조사에서는 민주주의보다 경제발전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반면, 불과 1년 후의 조사에서는 이것이 반전되었음

12.3 계엄에 대한 부정적 평가

- “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바람직했다고 생각하십니까?”라는 질문으로 계엄에 대한 평가를 물었을 때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
- “전혀 바람직하지 않았다”가 65.4%, “별로 바람직하지 않았다”가 11.8%였음. 이에 비해 계엄이 바람직했다는 의견은 12.4%에 불과했음

계엄에 대한 평가와 민주주의 중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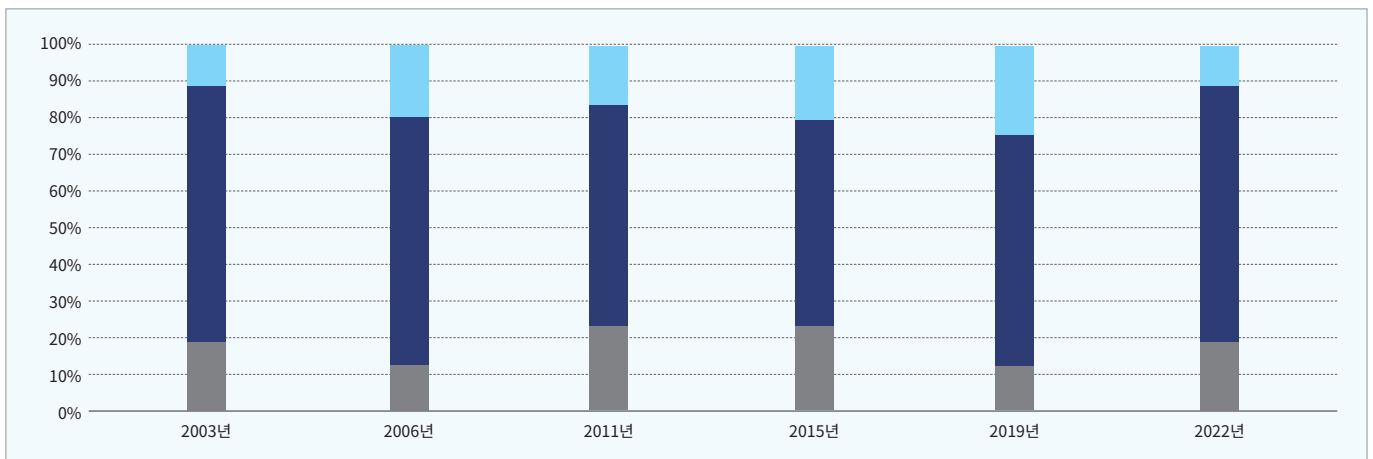
- 경제발전이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하다는 응답자 중, 계엄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69.9%였음
- 민주주의가 경제발전보다 더 중요하다는 응답자 중, 계엄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82.2%였음
- 즉, 민주주의가 경제발전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들은 계엄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더 높았음
- t검정으로 평균값 비교를 했을 때, 두 집단은 99%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



아시아 바로미터와의 비교

-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상대적 중요성을 묻는 문항은 아시아 바로미터 서베이(Asian Barometer Survey)에서 가져온 것임
- 아시아 바로미터 서베이의 이 문항 관련 한국 조사 결과를 2003년 이후부터 보면 아래 그래프와 같음
- 민주주의가 경제발전보다 중요하다는 응답은 2011년과 2015년에 각각 23.5%와 23.6%를 기록한 것 이외에 20% 이상을 넘은 적이 없음

- 2022년의 아시아 바로미터 서베이에서는 경제발전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69.4%로 압도적 우위
- 이처럼 한국에서는 민주주의보다 경제발전이 중요하다는 실용주의적 시각이 지난 20여 년간 지속되었는데, 이러한 태도가 2024년 12월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변화하였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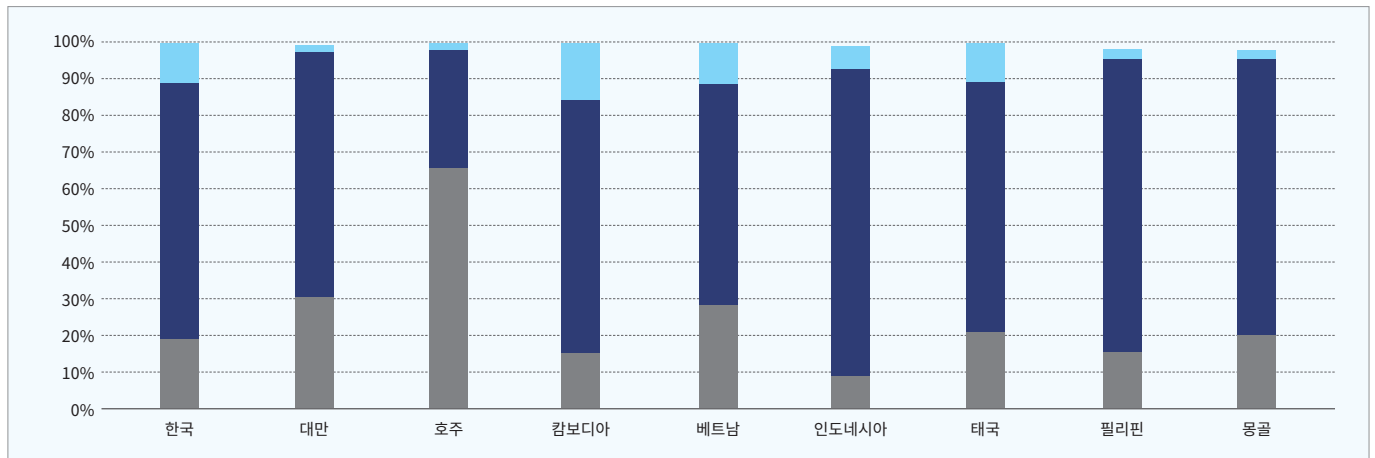
■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 ■ 경제발전이 더 중요 ■ 민주주의가 더 중요

구분	2003	2006	2011	2015	2019	2022
■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	11.5	19.7	16.7	20.9	24.5	11.5
■ 경제발전이 더 중요	69.9	67.2	59.9	55.5	63.7	69.4
■ 민주주의가 더 중요	18.7	13.2	23.5	23.6	11.9	19.1

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비교

- 아시아 바로미터 서베이의 2022년 Wave6 조사를 통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아시아 각국 시민들의 태도를 비교할 수 있음
- 2022년 조사에서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는 답이 65%를 기록한 호주를 제외하면, 아시아의 모든 국가에서 경제발전이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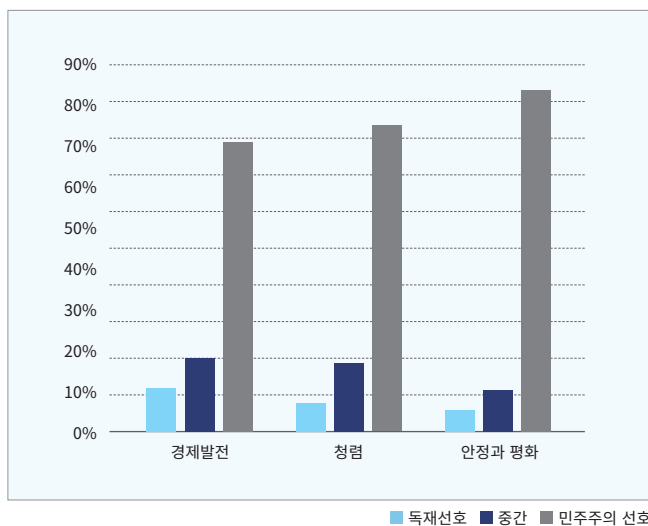
- “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”는 응답의 비율에서 대만(30.1%), 베트남(28.2%), 태국(20.9%) 등의 국가가 한국(19.1%) 보다 더 높음
- 따라서, 최소한 2024년 계엄 이전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보다 경제발전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의 일반적인 양태라고 할 수 있음



■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 ■ 경제발전이 더 중요 ■ 민주주의가 더 중요

구분	한국	대만	호주	캄보디아	베트남	인도네시아	태국	필리핀	몽골
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	11.5	1.1	1.2	16.0	11.5	5.4	10.8	2.3	2.2
경제발전이 더 중요	69.4	68.8	33.8	68.6	60.3	85.9	68.3	82.4	77.4
민주주의가 더 중요	19.1	30.1	65.0	15.4	28.2	8.7	20.9	15.3	20.4

독재와 민주주의의 비교



■ 독재선호 ■ 중간 ■ 민주주의 선호

구분	경제발전	청렴	안정과 평화
독재선호	10.8	7.9	6.3
중간	18.0	16.6	10.1
민주주의 선호	71.2	75.5	83.5

- 권위주의 시대의 고속성장을 기억하는 한국인들이 권위주의 혹은 독재 체제를 민주주의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체제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을지를 검증하기 위해, 2025년 민주주의 인식조사에서는 “경제발전”, “청렴성”, “사회적 안정과 평화”라는 세 측면에서 민주주의와 독재를 평가하도록 요청했음

- 분석 결과, 한국인들은 민주주의가 독재보다 세 측면 모두에서 우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음

- 예상과 달리 독재 체제가 경제발전에 낫다는 응답은 10.8%에 불과했음. 청렴(7.9%)이나 사회적 안정과 평화(6.3%)의 측면에서도 압도적인 비율로 한국인들은 민주주의가 독재보다 우월하다고 생각

- 이러한 결과는 일반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비효율적이고 혼란스러운 체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줌

3 결론과 제언

-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성취해 온 한국이지만, 정작 한국의 국민들은 2024년 계엄 이전까지는 민주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았음
- 21세기 들어서도 한국인들은 지속적으로 경제발전이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답해 옴
-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서도 한국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특별히 높게 평가해 왔다고 볼 근거는 없음
- 그러나 2024년 계엄을 분수령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인들의 평가에 변화가 발생했음을 본 조사는 보여주고 있음
- 한국인의 민주주의 인식은 단순히 설문 문항에서 측정되는 추상적 가치 선호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움. 계엄 국면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집단적 대응은 민주주의가 이미 중요한 정치적 규범으로 내면화되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음
-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민주주의 중요성의 증가는 이러한 잠재적 규범 의식이 위기 상황 속에서 보다 명시적으로 표현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
-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민주주의보다 우선하는 실용주의적 태도를 보여왔지만, 이것이 곧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선호를 의미하지 않음
- 오히려 2024년 계엄 국면은 한국 사회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민주주의 규범과 시민적 저항의 전통을 드러낸 사건이었음
- 향후 과제는 이러한 민주주의 의식이 단순한 위기 대응 차원을 넘어 지속적 시민참여와 속의민주주의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을 것임
-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2024년의 충격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 반동인지, 혹은 이것이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변화의 분수령이 될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적과 연구가 필요함
- 20·30대 젊은 세대의 극우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,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는 건전함
- 그러나 이러한 인식변화가 추후 정치 참여와 속의의 수준에 대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 노력 또한 요구됨
- 이를 위해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강화하고, 그 커리큘럼 마련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 노력이 필요할 것임

